분석해 봅시다

오리 사육동향 및 경기전망

조문규 사무국장

1. 서 언

지난 5월 중순이후 약세로 돌아선 산지오리가격이 최근 3천원대로 떨어져 생산비를 크게 밑돌면서 오리업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향후 오리가격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사육업계 종사자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대부분 업계종사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배합사료 생산량을 통계로한 오리 사육량을 분석하여 향후 시장전망과 불황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업계의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사육동향 분석

1) 육용오리 사육동향

지난 98년도 오리사육업계 호황으로 올해 국내 오리사육량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10월 현재 국내 육용오리 생산량은 1백55만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생산량은 전년같은기간 생산량 1백11만수에 비해 39%, 97년도 같은 기간 1백36만수에 비해서는 14% 증가된 량이다.

또 올 육용오리 분기별 사육동향을 살펴보면 1/4분기에 평균 1백52만수, 2/4분기에 1백78만수, 3/4분기에 2백19만수가 생산출하되어 분기별로 17%, 2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4/4분기의 육용오리 사육량은 1백70만수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22%, 2/4분기에 비해서는 4.5%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0월 산란사료 생산량이 2천톤을 넘어서 11월과 12월 산란사료 평균 생산량이 1천8백50톤 내외로 생산될 경우 2000년도 1/4분기 육용오리 생산출하예상량은 2백3만수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다시 육용오리 출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새끼오리 생산동향

금년도 새끼오리 생산량 역시 전년도 호황으로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새끼오리 생산량을 추산할 수 있는 10월의 산란사료 생산량은 2천59톤으로 집계되어 올들어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한 10월의 종오리 총 사육량은 27만 3천 8백수로 이중 종란생산에 가담하는 암컷 종오리는 22만8

천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준으로한 11월 새끼생산량은 2백 75만 6천수로 전월대비 25%,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별 새끼오리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1월에 1백77만수, 2월에 1백72만수, 3월에 1백81만수, 4월에 2백43만수, 5월 2백58만수등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던 새끼생산량은 6월에 2백34만수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7월에 2백39만수, 8월 1백72만수, 9월 1백80만수등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 10월 2백19만수, 11월 2백75만수등 다시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11월에서 2000년 1월까지 산란사료 생산량이 1천8백톤 내외에서 생산된다면 향후 새끼오리 생산량은 12월에 2백37만수, 2000년 1월 2백만수, 2월에 1백69만수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9월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산란오리 생산량이 낮은 시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부화장들이 종란을 식란으로 처분한다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오리 도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종오리를 쉽게 처분키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3. 향후 전망

1) 육용오리 가격전망

11월15일 현재 3천5백선 내외에서 출하되고 있는 국내 산지 오리가격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절이나 소비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오리고기 소비량은 크게 증가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 과잉을 반증하는 것이 배합사료 생산량이다.

10월말 현재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13만9천76톤이 생산되었으며 이중 어린오리 사료는 1만9천9백53톤, 육용 9만8천4백99톤, 산란오리 1만6천8백53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생산량을 지난해와 97년도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배합사료 총 월평균 생산량이 99년도는 1만3천9백7톤으로 98년도 월평균 생산량 9천20톤에 비해 54% 증가한데다 97년도 월평균 생산량 1만2천1백80톤에 비해서도 14% 증가했음이 반증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량에 있어 새끼생산량과 관계되는 올 산란사료 월평균 생산량은 1천6백85톤으로 지난해 1천1백78톤에 비해 43%, 97년도 1천5백18톤에 비해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용오리 사육량과 관계되는 어린오리 월평균 생산량은 1천9백95톤으로 지난해 1천1백81톤에 비해 69%, 97년도 1천70톤에 비해서는 86% 증가한 반면 육용오리 생산량은 월평균 9천8백49톤으로 지난해 6천1백66톤에 비해

60%, 97년도 7천5백95톤에 비해서도 30%가 증가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올해 5월이후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지연되는 현상속에서도 어린오리생산량 증가가 육용오리 생산량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잔반에 의한 육용오리 사육 및 토종오리 사육이 증가한데서 기인되는 현상으로 풀이되며 어린오리 생산량 증가는 전체 육용오리 사육량 증가로 이어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불황 불가피

배합사료 생산량을 기초로한 육용오리 출하예상량은 11월 1백62만5천수, 12월 1백91만2천수, 2000년 1월 2백34만수 등으로 10월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58%,58%,69% 각각 증가한 생산량이며 불황기였던 96년도 같은기간에 비해서도 17%,25%,25%가 각각 증가하는 생산량이다.

또 11월과 12월, 2000년 1월의 산란사료 생산량이 1천8백톤내외에서 생산되는 경우 육용오리 출하예상량은 2000년 2월 2백만수, 3월 1백72만수, 4월 1백52만수 등으로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2월 31%, 3월 14%, 4월 1%등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예측 상황으로 생산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육용오리 가격은 명년 2월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새끼가격 전망

10월말 현재 산란사료 생산량을 기초로한 11월 새끼생산량은 산란율, 부화율 65%로 계산시 2백89만6천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부화장들이 종란으로 생산된 알을 식란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새끼생산량은 2백75만수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같은 방식으로 새끼생산량을 예측할 때 12월은 2백37만수, 2000년 1월 2백만수, 2월 1백69만수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11월은 69%, 12월 31%, 2000년 1월 14%가 각각 증가하는 생산량이다.

따라서 새끼오리 가격역시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예측되면 특히 사육농가의 생산비이하에서의 육용오리 출하에 의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오리입식 기피현상까지 겹치면 새끼오리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향후대책

생산과잉에서 초래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화장들의 합의에 의한 과감한 새끼생산량 감축방안과 소비촉진을 위한 관련업계의 힘이 하나로 결집돼야 할 것이다.